
제6회 부산 금융중심지 포럼 발표자료

2023. 5. 31.

부산시 금융투자유치 확대방안 및 부산시 금융중심지 육성계획(안) 주요방향

김동훈 부산광역시 금융블록체인담당관



1부 금융투자 유치 확대 방안

1 해외 금융투자 유치 개황

1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로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정체 및 영업 축소

* 바클레이즈(英) :아시아 6개국(대만, 호주, 말레이, 인니, 태국, 한국) 철수
RBS(英):아시아 7개국(중국, 홍콩, 인니, 말레이, 인도, 태국, 한국) 철수

2 국내 금융사 해외 진출 비중은 아직 낮아 아웃바운드 진출 통한 인바운드 수요 창출도 미미

* 국내은행 총자산 중 해외점포가 차지하는 비중(%) :
(' 10)4.0→(' 12)4.2→(' 14)4.8→(' 16)5.1→(' 18)5.1→(' 20)6.0 → (' 21)6.7%

3 서울·부산에 금융생태계 조성 및 외국계 지역본부 유치 등은 미흡

- 1 (요건 1) 실물경제 규모가 커야 함 (금융회사들의 먹거리 확보)
 - 홍콩(중국경제) > 서울 > 싱가포르
- 2 (요건 2)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제도의 정립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요 지적사항)
 - 홍콩= 싱가포르 > 서울
 - 1 우리나라 진입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CEO의 법적 리스크에 부담
 - CEO에 대한 제재가 금전제재보다는 신분제재, 형사처벌인 경우가 多 → 투자 유인 저해
 - 2 경직적 노동시장
 - 자유로운 고용과 해고 어려움(최근 논의되는 “노동개혁”과 연계하여 개선 필요)
 - 3 외국인 투자 및 수익 창출에 대한 반발 정서
 - 외국인의 합법적 수익창출에 대한 사회적 반감, 간혹 나타나는 정부의 시장 개입(공매도 금지 등)
 - 4 경쟁도시에 비해 높은 세부담*
 - * 법인세 : 홍콩(16.5%), 싱가포르(17%), 한국 (25%)

- 3 (요건 3) 글로벌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편안한 정주 여건
 - 홍콩=싱가포르 > 서울
 - 관련 주요 포인트
 - ❖ 영어 통용 : 일상생활 및 행정 등에서 공용어 여부
 - ❖ 교육 : 고소득 외국기업 임직원 자녀를 위한 고급 교육시설
 - ❖ 의료 : 영리의료를 통해 비싸더라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 4 기타 사항
 - 기축통화 미보유국으로 낮은 원화 국제경쟁력
 - 홍콩은 외국인투자자들의 환리스크 제거를 위해 통화정책을 포기하면서까지 홍콩달러를 미국달러에 페그시키는 제도 채택
 - 남북대치상황에 따른 지정학적리스크 등

1부 금융투자 유치 확대 방안

3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를 위한 방안

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및 자치권이 부여된 '금융특구' 조성 검토

- 제기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혁신적 개선(발상의 대전환) 방안 모색
 - ▶ 세제, 고용규제, 정주 여건 등을 망라하는 처방을 위해서는 두바이*와 같이 파격적인 지원과 독립성·자율성 부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 법인세 50년간 면제, 지분투자 상한 폐지, 현지인 고용의무 無, 독립된 사법·금융감독 체계 등
- 우리나라 전체에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
 - ▶ 더블린(백오피스 특화)과 같이 특정 금융업(디지털 금융 등) 특화 금융중심지 추진 검토

2 인바운드(inbound)뿐 아니라 아웃바운드(outbound)도 강조될 필요

-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해외진출 성공 → 헤드쿼터가 자연히 우리나라에 존재 → 금융중심지 강화
- 해외진출 확대로 우리나라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 → 외국 금융회사들의 국내 유입 유인 강화



2부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계획(안) 개요

I. 정부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3.5)

1 금융중심지 정책환경 분석

1 글로벌 금융중심지 간 경쟁 심화(전통 vs 신흥)

- 브렉시트, 중국 국가안전법, 코로나19 등으로 런던, 홍콩 등 전통적 금융중심지 경쟁력 다소 하락
- 샌프란시스코·LA(IT), 파리(ESG), 두바이 등 특정 분야와 지역 발전에 기초한 특화형 중심지 부상

2 디지털 금융 및 지속가능 금융 영역 확대

- (금융의 디지털화)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빅데이터·AI 등 비금융 신기술과의 융합 확대
- (지속가능금융) 코로나19로 기후변화, 환경 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확대되며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 확산
-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디파이(Defi) 등 등장, 기술혁신과 투자자보호 간 균형있는 제도화 필요성 대두



2부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 정책방향 (1) - 글로벌 경쟁력 강화

1 금융규제혁신

- ①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
- ② 금융회사 디지털 전환 지원
- ③ 핀테크 지원 강화

2 국제적 금융인프라 구축

- ① 디지털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
- ②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
- ③ 핀테크 지원 강화
- ④ 외환제도 개선

3 자본시장의 글로벌화

- ① 해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 ②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
- ③ 자본시장 경쟁·효율성 제고
- ④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4 금융중심지 내실화



06

2부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 정책방향 (2) - 금융중심지 내실화

1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투자 지원

- 국내 금융사의 해외 영업기반 및 수익비중 확대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2 해외금융사 유치 지원

1 경영·생활환경 개선

- ☑ (서울) 여의도 금융산업클러스터 집적(금융특화단지조성, 디지털금융지원센터건립)
- ☑ (부산) BIFC 3단계 완공, 입주기관 지원 플랫폼 운영, 외국인학교 추가설립

2 금융중심지 홍보 내실화

- ☑ (서울) 금융사 발굴-탐색-사업수행까지 전과정 지원, 글로벌기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 ☑ (부산) 국제금융센터협의체 교류 강화, 홍콩·싱가포르 교류·협력 확대

* 홍콩 디지털금융포럼 공동 개최,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참가(국내기업 동반) 등

07

2부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계획(안) 개요

II. 부산 금융산업육성기본계획안(23.6.예정)

1 부산 여건 및 정책 기초

1 (인력) 저출산, 청년유출

- ① 기업유치 확대, 공공기관 2차 이전, 창업 활성화
- ② 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인프라 강화, 교육분권 실현으로 대학교육 혁신 추진 (RISE, RIS, 글로벌대학 등)

2 (산업(동남권) 중후장대형 2차 산업에 집중되어 개도국의 성장세를 감안할 때 그 위상을유지해 나가기 곤란

- ① 미래신성장동력 지속 발굴(바이오헬스, 파워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 ② 창업생태계 구축
- ③ 서비스업의 고도화(금융, 의료 등)

3 (토지) 도심·시가지 지역 쇠퇴

- ① 산단 대개조
- ② 도심 재정비
- ③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

2부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계획(안) 개요

2 부산 금융중심지 조성의 성과

1 부산국제금융센터 조성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핵심 인프라 확보

- BIFC 1단계('14.8. 完)는 1차공공기관 집적, 2단계*('18.11. 完)는 주거·부대시설, 3단계('22.3. 착공)는 디지털 기반 금융중심지로 차별화 조성

2 글로벌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인지도 향상

* 영국 Z/Yen(지엔)사 평가 GFCI 3년간 14계단 상승 ▷('20.3.)51위→('23.3.)37위

3 해양·파생·정책·디지털금융 중점 추진

- 해양금융종합센터, KRX 파생시장본부 구축·운영, 해양·파생 특화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18~'22.)
-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국정과제 선정('22.5) 및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23.5.)
- 부산 핀테크 허브 조성(U-Space, S-Space)으로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

2부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계획(안) 개요

3 부산 금융중심지의 한계

1 정책적 측면

- ① 지역 산업과의 유기적 연계 부족
- ② 금융공공 기관 집적화라는 성과 대비, 이를 활용한 산업 생태계 조성 미흡
- ③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성장잠재력(기술개발, 신규사업 발굴) 확대 미진

2 구조·제도적 측면

- ① 홍콩·싱가포르 대비 금융 수요의 기반이 되는 실물경제 규모 다소 작음
- ② 세제·고용·금융규제 면에서 불리



10

2부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계획(안) 개요

4 부산시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 (1) - (부산 금융산업육성기본계획안(23.6))

※ 국회·부처 협조를 지속 노력하면서, 우선 우리시가 시행 가능한 전략에 집중

1 글로벌 금융중심지 기능 강화

- ① (네트워크 활성화)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協, 경제협력 N/W 내실화, 국제금융기구 및 외국계 금융기업 추가 유치
- ② (금융 지원 인프라)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금융권 데이터센터 구축
- ③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 지역투자 주목적 부산형 스케일업 모펀드 조성

* 금융공기관, 지역 금융기관 등과 지역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모펀드(자펀드까지 4,000억 규모)

2 정책 금융중심지 기반 구축

- ① (기능 강화 지원) 선박, 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기업 성장주기 맞춤형 대책* 마련 지원

* 대출채권 유통화 등 벤처기업 지원(기보), '자산매입 후 임대'를 통한 중소기업 정상화 지원(캠코)

- ② (추가 유치) 1차 이전기관·한국산업은행과 연계된 i) 금융·투자 지원, ii)창업 지원, iii) 해양·선박산업 지원 기관 유치로 기관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

11

2부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계획(안) 개요

4 부산시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 (2) - (부산 금융산업육성기본계획안(23.6) 中

3 디지털금융 역량 강화

- ① (디지털금융 집적) BIFC 3단계를 디지털 금융 앵커·벤처기업, 지원 기능이 집중된 남부권 최대 디지털 금융밸리로 특화
- ② (핀테크) 부산 핀테크 허브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핀테크랩 유치
- ③ (블록체인) 블록체인 연계 지역특화 사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통합시민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 ④ (인력 양성) 디지털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조성 및 디지털 금융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시민 아카데미 운영

4 해양·파생 금융 혁신으로 금융산업 육성 기반 구축

- ① (해양 금융 강화) 해양진흥공사, 해양금융종합센터 중심 해양금융 기능 강화 및 해양금융협의체 내실화(공동협력 사업 발굴·추진), 해양금융인력 양성
- ② (녹색 금융) 탄소가치평가보증(기보), 사회책임투자채권(KRX) 등을 통한 녹색 금융 활성화

2부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계획(안) 개요

III. 논의 사항 (장기적 관점)

☑️ 특구 형태?

(참고)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수영 의원 대표 발의)

- 금융업 관련 관계 법령 적용이 배제·완화되는 지역을 “금융특구”로 정의
- 시도지사가 특구 조성계획 작성, 금융위가 심의·의결
- 시도지사가 금융특구를 관리하는 금융특구청 설치
- 국내외 금융기관에 국세, 지방세 감면 가능
- 외국인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문서 외국어 발급 등 생활 편의 제공
- 외국학교법인 교육시설, 외국의료기관 등 금융특구 내 설치·운영 가능

☑️ 거버넌스?

☑️ 지식기반 혁신기업 유치?



부산의 최근 GFCI 순위 변동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최근 부산의 GFCI 순위 변동 요인 분석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김종화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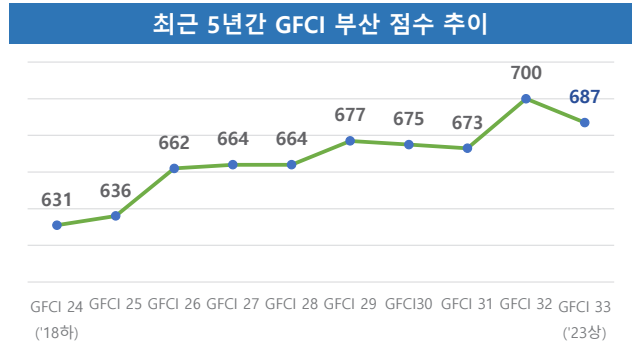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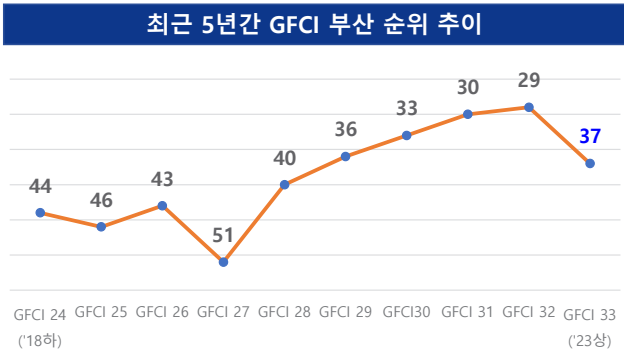
1.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 변동 추이
2. 부산의 주요 항목별 평가결과
3. 부산과 서울 비교
4. 향후 대응방향

- (붙임) 1. 주요 글로벌 도시경쟁력평가 비교 2. 글로벌 파워 도시 지수(모리재단)
3. 글로벌 도시 보고서(AT Kearney) 4. 글로벌 녹색금융 지수(Z/Yen)
5. UK Infrastructure Bank

1.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 변동 추이

□ 2023년 3월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는 120개 도시 중 **37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2년 9월 대비 **8단계 하락**한 수준

* 부산 순위 추이: 51위('20상) → 40위('20하) → 36위('21상) → 33위('21하) → 30위('22상) → 29위('22하) → 37위('23상)
↳ 순위 발표 이래 역대 최고는 24위('15상,하), 최저는 70위('17하)



□ 최초로 '향후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15개 도시'에 포함(11위)

(참고)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GFCI)

▶ 개요

글로벌 컨설팅 전문기관인 Z/Yen그룹(영국, 런던 소재)이 매년 3월, 9월 두 차례 주요 금융센터(2023년 3월 기준 120개)의 경쟁력 순위를 발표

▶ 평가방법: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가중평균

정량평가

- 국제기구 등이 발표하는 5개 분야 **138개 각종 통계 지표**를 활용
 - ①인적자본 ②기업환경 ③금융부문발전
 - ④기반시설 ⑤평판 등

정성평가

- 24개월 내 전세계 **11,000여명(2023년 기준)**의 금융전문가들 대상 온라인 설문하여 **150개 이상의 유효 응답**을 기반으로 평가

1.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 변동 추이(2)

□ 뉴욕이 GFCI 32('22.9월)에 이어 GFCI 33('23.3월)에도 **1위를 차지**하였으며, 런던(2위), 싱가포르(3위), 홍콩(4위) 등 **상위권 도시의 순위 변동은 없음**

* 뉴욕은 2018년 9월부터 1위를 지속

- 시카고(12위→8위), 보스턴(14위→9위), 서울(11위→10위)이 Top 10에 새로 진입한 반면, 센젠(9위→12위), 베이징(8위→13위), 파리(10위→14위)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남**

상위 10개 도시의 순위 변화

구분	뉴욕	런던	싱가포르	홍콩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상하이	시카고	보스턴	서울
GFCI32	1	2	3	4	5	7	6	12	14	11
GFCI33	1	2	3	4	5	6	7	8	9	10
등락	-	-	-	-	-	1	▽1	4	5	1

2. 부산의 주요 항목별 평가결과

▶ 종합

부산에 대한 평가 추이

구분		GFCI24 ('18. 9)	GFCI25	GFCI26	GFCI27	GFCI28	GFCI29	GFCI30	GFCI31	GFCI32	GFCI33 ('23. 3)
전체	순위	44	46	43	51	40	36	33	30	29	37
	점수	631	636	662	664	664	677	675	673	700	687
정량 평가	순위	비공개									
정성 평가	순위 ¹⁾	95	98	101	85	31	32	28	29	33	29
	평균점수	500	467	465	584	684	691	700	698	700	701

주: 1) 금융진흥원이 GFCI 보고서를 이용하여 추정된 수치임

2. 부산의 주요 항목별 평가결과(2)

▶ 부산 설문(정성평가) 응답자 및 결과

□ 부산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수는 2,154명으로 **전체 3위**를 차지함

* 1위 뉴욕(3,577명), 2위 런던(2,268명), 4위 홍콩(2,061명)

↳ 서울 응답자수 : 569명

-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설립(2020.7월) 이후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응답자 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부산 설문(정성평가) 응답자 및 결과 추이

구분	GFCI 24	GFCI 25	GFCI 26	GFCI 27	GFCI 28	GFCI 29	GFCI30	GFCI 31	GFCI 32	GFCI 33	
	(18.9)	(19.3)	(19.9)	(20.3)	(20.9)	(21.3)	(21.9)	(22.3)	(22.9)	(23.3)	
응답자	수	202	197	189	436	738	1,373	2,307	2,081	2,466	2,154
	순위 ¹⁾	53	50	49	24	19	12	7	5	4	3
정성평가	점수	500	467	465	584	684	691	700	698	700	701
	순위 ¹⁾	95	98	101	85	31	32	28	29	33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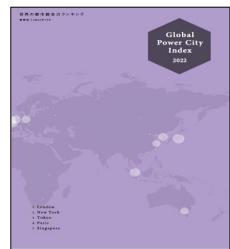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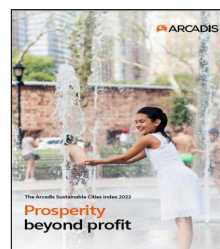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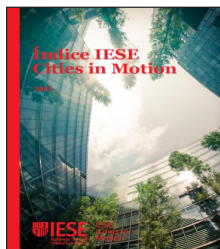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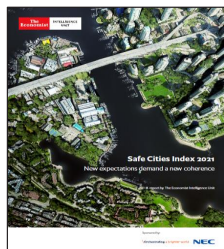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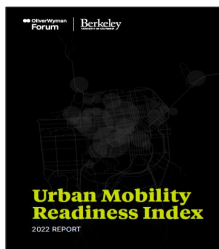
주: 1)금융진흥원이 GFCI 보고서를 이용하여 추정한 수치임

3. 부산과 서울 비교

▶ 문제점

□ GFCI 최종 순위와 상관관계가 높은 상위 20개 지표 중 부산은 5개 지표의 데이터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됨

- * Oliver Wyman(미국) 도시모빌리티준비지수(인프라), The Economist(영국) 안전도시지수(명성), IESE(스페인) 스마트시티지수(명성), ARADIS(네덜란드) 지속가능한도시지수(명성), 모리기념재단(일본) 글로벌파워도시지수(명성)



3. 부산과 서울 비교(2)

▶ 부산 데이터가 없는 경우

□ 전체 정량지표 중 서울은 데이터가 있는데 부산은 없어 평가에서 제외된 지표가 12개에 달함

부산 결측 데이터(Missing Data) 추이 및 데이터명

- 전체 지표 수: 138개,
- 서울: 129개(9개 제외), 부산: 117개(21개 제외)

GFCI 31	GFCI 32	GFCI 33
15	13	12

데이터명	서울 순위
(명성) IESE 스마트시티지수	12
(명성) ARCADIS 지속가능도시지수	22
(명성) AT Kearney 글로벌시티지수	12
(명성) 모리기념재단 글로벌파워도시지수	7
(명성) The Economist 안전도시지수	23
(인프라) CBRE 사무실 임대 가격 순위	53
(인프라) 올리비아와이만 도시모빌리티준비지수	19
(인프라) 나이트프랭크 고급주택지수	4
(금융부문 발전도) 코퍼레이트 나이트 금융센터 지속가능성 공시	29
(금융부문 발전도) 코퍼레이트 나이트 금융센터 탄소 집약도	26
(금융부문 발전도) 핀덱서블 글로벌 핀테크 인덱스	27
(금융부문 발전도) CBI '18년 12월까지의 녹색 채권 총 발행액	30

주) 음영체는 최종 순위와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임

3. 부산과 서울 비교(3)

▶ 부산 대비 서울의 데이터 수치가 양호한 경우

구분	부산(A)	서울(B)	차이(B-A)
(기업환경) World Bank 기업환경평가	104	5	△99
(기업환경) Lloyd's 도시 위험 지수 2015-2025	30	83	△7
(명 성) 2ThinkNow(호주) 혁신도시지수	40	6	△34
(인 프 라) UNFCC 탄소저감활동	60	16	△44
(인 프 라) Metro Bits 세계 지하철 연결거리 지수	33	12	△21
(인 프 라) IMD(스위스) 스마트시티지수	23	9	△14
(금융부문 발전도) 브루킹스연구소 경제성과지수	54	30	△24
(금융부문 발전도) Z/Yen 글로벌녹색금융지수	21	12	△9
(금융부문 발전도) 국제기후채권기구(CBI) 증권거래소의 녹색채권 발행 여부	38(N)	1(Y)	△37
(인적자본) Euromonitor 세계 인기 여행지	51	28	△23
(인적자본) Mercer 삶의질순위	58	44	△14
(인적자본) Mercer 세계도시물가순위	27	12	△15
(인적자본) Education first 영어능력지수	79	60	△19

주) 음영체는 최종 순위와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임

□ 부산 대비 서울의 데이터 수치가 큰 지표는 13건임

* GFCI 31(12건), GFCI 32(13건), GFCI 33(13건)

- 기업환경평가지수(부산 104위, 서울 4위), 탄소저감활동(부산 60위, 서울 16위), 혁신도시지수(부산 40위, 서울 6위)는 **30단계 이상 차이**
- 특히, **전체 순위와 상관관계가 높은** 혁신도시지수(차이:34단계), 스마트시티지수(14단계), 글로벌녹색금융지수(9단계) 등은 서울과 차이가 큼

3. 부산과 서울 비교(4)

▶ 서울 대비 부산의 데이터 수치가 양호한 경우

□ 부산이 서울에 비해 양호한 지표는 6건

* GFCI 31 (6건), GFCI 32(5건), GFCI 33(6건)

부산-서울 정량지표 순위 차이

구분	부산(A)	서울(B)	차이(B-A)
(인 프 라) ITDP 서비스접근성	19	30	11
(인 프 라) Numbeo 오염지수	61	63	2
(인적자본) Numbeo 구매력지수	46	56	10
(인적자본) Numbeo 웰스케이지수	1	3	2
(인적자본) Numbeo 삶의질지수	46	71	25
(인적자본) Numbeo 범죄지수	20	23	3

4. 향후 대응방향

▶ 기본방향

-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 노력이 절실
- 금융중심지 육성 관련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수단을 확보
 - 금융중심지 육성 governance 개선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예산 자율성 확대
- 정책금융중심지로서 발전과 지역의 금융수요의 확충 필요
 -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및 디지털 전환 관련 금융수요(예: UK Infrastructure Bank)
- 디지털 금융, 지속가능 금융 등 미래금융을 중심으로 육성하고 서울 등 여타 도시와의 협력 및 보완을 강화하면서 금융 전문인재를 양성
- 지역 경제주체들의 금융중심지 육성 및 신성장동력으로서 금융산업 발전 의지가 중요

4. 향후 대응방향(2)

▶ 금융 관련 도시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최종 순위와 상관관계가 높은 상위 5개 지표

순위	GFCI 31(22.3)	GFCI 32(22.9)	GFCI 33(23.3)
1위	The Global Green Finance Index-Depth (Z/Yen)	Urban Mobility Readiness Index (Oliver Wyman)	The Global Green Finance Index (Z/Yen)
2위	Urban Mobility Readiness Index (Oliver Wyman)	The Global Green Finance Index(Z/Yen)	Urban Mobility Readiness Index (Oliver Wyman)
3위	The Global Green Finance Index-Quality (Z/Yen)	Safe Cities (The Economist)	Logistics Performance Index (The World Bank)
4위	Safe Cities (The Economist)	Logistics Performance Index (The World Bank)	Safe Cities (The Economist)
5위	Global Cities Index (AT Kearney)	Best Countries For Business (Forbes)	Best Countries For Business (Forbes)

□ 금융관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 필요

-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환경, 평판,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산업 발전이 긴요
- 종합 순위와 상관관계가 높은 글로벌 지표들을 분석하여 부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해당 지표들의 순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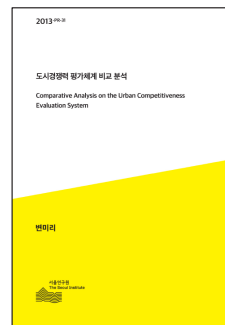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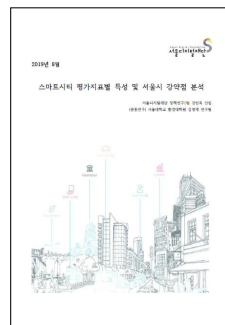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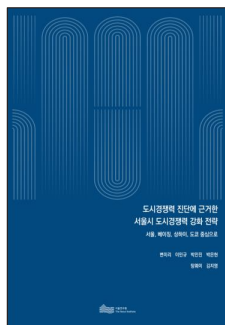
* 예) Best Countries For Business(규제, 세제, 투자자 보호 등 나라별 비즈니스 환경 평가) - 중심지 육성 정책 수립 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방안을 도출 및 시행
 Urban Mobility Readiness Index(도시 교통체계 평가), Safe Cities(보건 안전, 개인 안전, 디지털 안전 등 도시 안전도 평가) -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을 더욱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4. 향후 대응방향(3)

▶ 금융 관련 도시 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계속)

- 각종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연구가 필요하며 영문으로 발표하는 데이터를 확대해야 함

* 서울시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인덱스 현황(2022, 서울디지털재단), 도시경쟁력 진단에 근거한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2021, 서울연구원), 스마트시티 평가지표별 특성 및 서울시 강약점 분석(2019, 서울디지털재단), 도시경쟁력 평가체계 비교 분석(2013, 서울연구원) 등 다양한 연구자료를 통해 지수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도출



4. 향후 대응방향(4)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육성, 해양금융 발전 도모

□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 필요

- 주요 글로벌 도시 경쟁력 지표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금융에 대한 평가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 부산은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서울과 격차가 큰 경우**가 다소 있어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코퍼레이트 나이트 금융센터 지속가능성 발표, 코퍼레이트 나이트 금융센터 탄소 집약도, IESE 스마트시티지수(세부항목에 환경 포함), 모리재단 글로벌 파워도시 지수(세부항목에 환경 포함)

** UNFCC 탄소저감활동

□ **항만, 물류, 조선해양산업** 등의 집적지로서 부산이 갖는 장점을 활용하여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지역 소재 민간금융회사의 발전을 통해 지역 금융산업 육성도 추진

	해운중심지	해양 금융 및 법률	해양 기술	항만 및 물류 서비스	도시 매력도 및 경쟁력	총 합
2022 부산 순위	24위	16위	3위	32위	20위	11위

출처: Menon Economics and DNV, The Leading Maritime Capital of the world 2022 (50개 글로벌 해양도시의 부문별 및 종합 순위를 선정)

4. 향후 대응방향(5)

▶ 글로벌 평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

□ AT Kearney, Mori Foundation 등 세계 도시 경쟁력 지표를 편제, 발표하는 기관에 대한 접촉을 통해 부산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경쟁력 평가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평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 사항들을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금융 및 글로벌 분야 우수 전문인력 유치와 양성을 통해 인적자본 항목의 경쟁력을 키워야 함

- 부산의 영어능력지수(인적자본 지표)는 8단계 하락한 반면, 동기간 서울은 11단계 상승

영어능력지수(English proficiency) 추이

구분	GFCI 33(A)	GFCI 32(B)	등락(B-A)
부산	79	71	△8
서울	60	71	11

(붙임 1) 주요 글로벌 도시경쟁력평가 비교

▶ 전체 정량지표 중 서울은 데이터가 있는데 부산은 없는 지표(12건) 중 최종 순위와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에 대해 조사

지수명	평가주관	서울시 순위*	평가 분야 및 항목	평가대상 (도시수)	발간주기
(인프라) 도시 모빌리티 준비지수	올리버와이만 (미국)	19	5개 분야(인프라, 사회적 영향, 시장매력도, 시스템 효율성, 혁신성), 57개 세부지표	60	매년 말
(명성) 안전도시지수	The Economist (영국)	23	5개 안보 분야(디지털, 보건/의료, 사회 인프라, 개인, 환경), 76개 지표	60	격년 8월
(명성) IESE 스마트시티지수	IESE(스페인)	12	9개 분야(인적자원, 사회적 결속력, 경제, 거버넌스, 환경, 이동성/교통, 도시계획, 국제교류, 기술), 101개 지표	174	매년 10월
(명성) ARCADIS 지속가능한도시지수	알카디스 (네덜란드)	26	3개 분야(시민 생활 요건, 경제활동, 고용률), 51개 지표	50	매년 6월
(명성) 글로벌 파워도시 지수(GPCI)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 연구소(일본)	7	6개 분야(경제, 연구개발, 문화의 상호작용, 거주 적합성, 환경, 접근성), 70개 세부지표	48	매년 10월
(명성) 글로벌 도시지수(GCI)	AT Kearney(미국)	12	5개 분야(비즈니스 활동, 인적자원, 정보 교류, 문화체험, 정치적 참여), 29개 세부지표	156	매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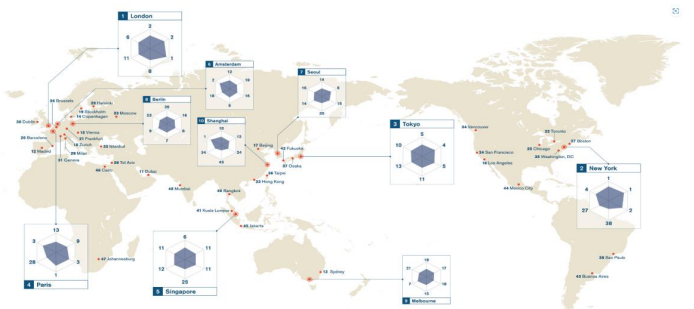
* 상관관계가 높은 순으로 나열, 각 지수별 순위로 GFCI 내 순위와 다를 수 있음

(붙임 2) Global Power City Index(글로벌 파워 도시 지수)

▶ 사회,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

분야	세부항목	세부지표	2022년 서울 순위
경제	시장규모	GDP, 1인당 GDP 등	14위 (248.62점)
	시장매력도	GDP 성장률, 경제자유도 등	
	경제활력	중권거래소의 주식시가 총액, 세계 상위 300대 기업 수 등	
	인적자본	종사자 수, 비즈니스 서비스업 종사자 수 등	
	사업환경	평균임금수준, 우수한 인재확보의 용이성, 1인당 오피스 면적 등	
연구 개발	규정과 위험	법인세율, 정치경제사업 등의 위험도에 따른 지수 등	6위 (130.5점)
	연구지원	연구자 수, 세계 top20 대학 수 등	
	연구환경	수확과 과학에서의 학술 성과, 외국인 연구자 수용도, 연구개발비 등	
문화 교류	연구업적	산업재산권(특허)의 등록 수, 주요 과학기술상 수상자 수, 연구자들 간의 상호 교류기회 등	15위 (145.9점)
	유형을 선도하는 잠재력	국제컨벤션 개최 건수, 세계주요 이벤트 개최 건수, 시장각 및 관련 서비스의 무역 가치 등	
	문화지원	창작활동의 환경, 유네스코 세계유산(100km권), 문화적 역사적 전통적 상호작용 기회 등	
	관광객을 위한 시설	극장 콘서트홀 수, 박물관 수, 경기장 수 등	
	방문객 매력도	고급호텔의 객실 수, 호텔 수, 쇼핑 만족도, 식당 만족도 등	
거주의 적합성	교통 정도	외국인 수, 해외 방문객 수, 해외 유학생 수 등	35위 (316.5점)
	노동환경	실업률, 중 노동시간, 종업원의 생활만족도 등	
	생활비	평균 주택임대료, 평균 물가수준 등	
	안보와 안전	1인당 살인 건수, 재해대응력 등	
	생활환경	기대수명, 커뮤니티의 성숙도, 1인당 의사 수 등	
생태 환경	생활시설	연구일도, 외국인 학교 수, 소매점포의 다양성, 음식점의 다양성 등	14위 (180.5점)
	생태	SD 14001 취득기업 수,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재활용 비율 등	
	오염도	CO2 배출량, SPM 농도, NO2(아산화질소) 농도 등	
교통 접근성	자연환경	수질, 도심부의 녹피상향, 기온의 쾌적도 등	16위 (167.1점)
	국제교통네트워크	국제선 여객선 취항도시 수, 국제선 화물 항공 직항 권위항도시 수 등	
	국제교통기반시설	국제선 여객수, 활주로 본수 등	
	도심지역 교통 서비스	공공교통(주요 지하철)의 역 밀도, 공공교통의 정시성, 통근의 편리성 등	
	교통편리성	도심에서 국제공항까지 소요시간, 1인당 교통사고 건수, 택시운임 등	

- 평가명 : Global Power City Index
- 평가기관 :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 (Mori Foundation)
- 발표시기 : 매년 10월 결과 발표
- 평가항목 : 6개 분야, 26개 세부항목, 70개 세부지표 ('23년 기준)



(붙임 3) Global Cities Report(글로벌 도시 리포트)

▶ 글로벌 도시 지수 및 전망 발표

- 평가명 : Global Cities Report
- 평가기관 : AT 커니(AT Kearney)
- 발표시기 : 매년 10월 결과 발표

Index(지수)		Outlook(전망)	
City	2022 rank	City	2022 rank
New York	1	London	1
London	2	Paris	2
Paris	3	Luxembourg	3
Tokyo	4	Munich	4
Beijing	5	Stockholm	5
Los Angeles	6	New York	6
Chicago	7	Dublin	7
Melbourne	8	Copenhagen	8
Singapore	9	Abu Dhabi	9
Hong Kong	10	Amsterdam	10

- 평가방법('23년 기준) :

- (글로벌 도시 지수) 5개 분야, 29개 세부항목

구분	세부 항목	비중(%)
기업활동	자본 흐름, 자본시장 규모, 대기업 수 등	30
인적자원	교육 수준 등	30
정보 교환	인터넷, 기타 미디어를 통한 정보 접근성 등	15
문화적 체험	스포츠 경기, 박물관, 엑스포 등의 접근성 등	15
정치적 참여	정치 관련 행사, 연구소(think tank), 대사관/영사관 등의 수	10

- (글로벌 도시 전망) 4개 분야 13개 세부항목

구분	세부 항목	비중(%)
웰빙	안전, 보건의료, 불평등, 환경 등	25
경제	장기 투자 규모, 국내총생산 등	25
혁신	특허를 보유한 사업자 수, 개인 투자 규모, 창업보육센터 등	25
거버넌스	정책의 안정성 등	25

(붙임 4) Global Green Finance Index(글로벌 녹색금융 지수)

▶ 지속가능성 등 글로벌 녹색금융경쟁력 평가

- 평가명 : Global Green Finance Index
- 평가기관 : 지엔(Z/Yen)
- 발표시기 : 매년 2회(4월, 10월)

- 평가방법('23년 기준) :

- 정량평가 : 4개* 분야, 150개 세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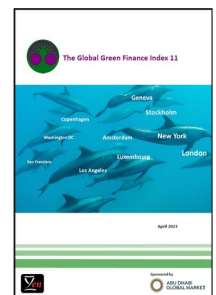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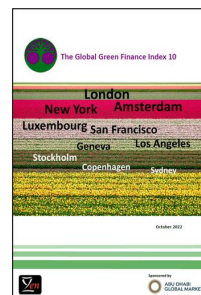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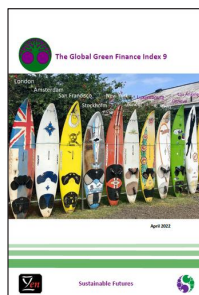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인적자본(Human Capital), 기업환경(Business), 기반시설(Infrastructure)

** 국제기구(World Bank, OECD, UN 등) 및 국제건설팅업체 등이 발표하는 통계지표 활용

- 정성평가 : 전 세계 630여명의 금융전문가들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4,498개의 응답을 기반으로 평가

- GGFI 11('23년 상반기 발표) 주요 순위

- 1위 런던, 2위 뉴욕, 3위 스톡홀름, 4위 제네바, 5위 룩셈부르크
- 부산 26위, 서울 15위



(붙임 5) UK Infrastructure Bank



- 정부소유(state owned) 정책금융기관
- 설립 일시 : 2021년 6월
- 자본금 : 22bn 파운드(약 3.6 조원)
- 설립목적 : ①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②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에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인 자금공급과 민간자금 유인 등 안내자본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

투자원칙	▲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후대응 역할에 부합 여부 ▲ 인프라 자산 및 관련 신기술 대상 ▲ 수익 창출 ▲ 민간투자 유인 가능성
주요 투자처	청정에너지, 운송, 디지털, 폐기물과 수자원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 (※ 구제금융, 원유, 천연가스, 발전용 석탄 관련 프로젝트는 지원하지 않음)

Clean energy
 Transport
 Digital
 Water
 Waste

참고문헌

- ARCADIS, The Arcadis Sustainable Cities Index 2022
- AT Kearney, 2022 Global Cities Report
- IESE business School , Cities in motion Index
- Menon Economics and DNV, The Leading Maritime Cities of the world 2022
- Mori Foundation, Global Power City Index 2022
- Oilver Wyman, Urban Mobility Readiness Index 2022 Report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Safe Cities Index 2021
- UK infrastructure Bank, Strategic Plan 2023
- Z/Yen, 2018~2023, The Global Finance Centres Index
- Z/Yen, The Global Green Finance Index 11
- KDB미래전략연구소, 2021, 영국 인프라 은행(UKIB)의 설립과 주요 역할, 이슈브리프
- 기타 GFCI 지표 관련 데이터 등



감사합니다